

지역 소식통

고창군, 민선8기 맞아  
청사 태극기·군기 점검

고창군이 민선8기를 맞아 태극기와 군기의 소중함을 부각하기 위해 고창군청을 비롯한 읍면사무소, 사업소 등 태극기와 군기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4~6일 고창군 각 부서와 읍·면에서는 관리 시설뿐만 아니라 읍면 경로당 등에 태극기와 군기의 변색이나 오염, 훼손이 없는지 점검하고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고창군은 매년 경축일에 태극기와 군기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제74주년 제헌절을 맞아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이기 위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동물병원 운영  
실태 조사 '이상 무'

정읍시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동물병원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은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며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업 향상을 유도하고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했다.

특히,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진료비 과다 청구 등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점검은 지역 내 동물병원 2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는 점검 기간 동물병원 종사자 등 중요 사항 변경 신고 여부와 유효기간 초과 약품 사용 여부 정당화 사유 없이 진료료 요구 거부행위, 병원 내 위생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일부 동물병원에서 진료비·위협성 등을 사전에 미고지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하는 행위 등 동물진료의 적정성도 점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군민행복 · 활력고창 위해”

심덕섭 고창군수,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각오 밝혀

심덕섭 고창군수가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민행복, 활력 고창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7일 오전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심 군수는 “인수위원회 과정과 취임식 이후 국가예산 확보, 동우파트네 이블 입주 문제, 농촌 일손부족 해결 등을 위해 혼신을 다해 뛰고 있다”고 말했다.

심 군수는 향후 고창군의 미래 성장 동력에 “에너지 산업”과 “관광”을 꼽았다. 심 군수는 “노을대교와 연계된 서남권 해상풍력, 한전 전력사업장 등 청정에너지 기업을 유치하면 청년 일



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소멸 대응질문에 심 군수는 “청년이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는 고창이다”고 답하며 새로운 도전과 시도를 응원하는 ‘청년 창업 클러스터’, ‘변형고 좋은 일자리 유치’, ‘승계능 적극지원’ 정책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어 심 군수는 “고창하면 이거다 하는 랜드마크가 없다”며 “건축물 혹은 시스템, 플랫폼 등 전국 누구나 고창을 떠올릴 수 있는 상징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심 군수는 동우파트네이블의 일방적 철회 관련, 고수면민들과 지역에 환경을 걱정하는 주민들에게 위로와 사과를 전했다.

심 군수는 “2년여간의 갈등을 치유하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준공을 서둘러 본래 계획상 ESG친환경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6일) 이뤄진 수시인사 관련 질문에 “문책성 인사는 아니다”면서도 “일부 직원의 경우 군 최대 현안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보고를 누락하는 등 기강문제가 불거져 어면식으로든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이다”고 언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제9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고창을 호암마을이 '마을만들기 경관·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 경관·환경 분야 '우수상'

고창군 호암마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수상

고창군이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제9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고창을 호암마을이 '마을만들기 경관·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

호암마을은 전문가 현장평가를 통해 도내 8개 마을이 참여한 '경관·환경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창을 호암마을은 주민과 방문객이 서로 배풀어 치유와 환대가 함께하는 호암마을로 '사람과 자연의 치유가 환대하는 호암마을'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지난 2005년 주민 자발적인 축사정리와 도로정비를 시작으로 2014년 메이플스톤사업으로 마을 카페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였다.

/고창=김영식 기자

또한 2019년부터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산촌마당캠프, 소셜다이닝 등을 진행했다.

방부역 호암마을 이장은 “이번 콘테스트 수상을 통해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동과 마을가꾸기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며 “생생마을 만들기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고,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기 농어촌식품과 과장은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통해 살고 싶은 마을, 잘사는 농촌마을 만들기 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공동체 프로그램을 추진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시, 폭염 대응 종합대책 본격 가동

9월 30일까지 12명 3개 반 '폭염 대책 T/F팀' 운영

정읍시가 올여름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그늘막 설치와 무더위쉼터 운영, 양산 양산대여소 운영 등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 운영에 들어갔다.

우선, 시는 도시안전국장 총괄 아래 상황관리반과 건강관리 지원반, 시설관리반 등 3개 반 12명으로 구성된 '폭염 대책 T/F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폭염 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종합

상황관리에 들어간다.

또 보행자가 많은 사거리 등 시내 곳곳에 스마트 그늘막(온도 15°C 이상, 풍속 7m/s 이하 가동) 5개소를 추가 설치해 총 44개소(스마트그늘막 40개소, 접이식 그늘막 4개소)의 그늘막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주민센터와 경로당, 급유기관 등 냉방시설이 구축된 실내 무더위쉼터 345개소를 지정 운영해 주민들이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폭염 특보 시에는 시내 주요 버스승강장 8개소에 얼음을 비치하는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

또한 아이무더위쉼터 3개소에 얼음물을 비치하고, 폭염 대응 홍보 물품(휴대용 선풍기, 할파치, 쿨도시, 텀블러 등)을 제작해 폭염 취약계층에게 배부하는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울러 재난재해 문자와 재해예방보시시스템, 전광판 활용 등을 통해 폭염 위험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피해 예방 행동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이화수 시장은 “한낮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시원한 물을 자주 섭취하는 등 개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말했다./정읍=김대환 기자

## 권익현 부안군수, 해수욕장 개장 대비 현장행정 추진

권익현 부안군수는 개장을 앞둔 관내 해수욕장을 찾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7일 권익현 부안군수는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해수욕장 등 관내 4개소 해수욕장을 방문하여 해수욕장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방역)시설과 안전(구조)장비 등을 점검하고 개장 준비를 살펴보았다.



부안군 관내 5개소 해수욕장 (변산, 고사포, 격포, 모항, 위도) 개장시기

는 7.7.9.~8.15. 까지 운영한다.

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까지이고 폐장후에도 해수욕장 이용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8월 31일까지 안전관리와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개방하여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수욕을 즐길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 부안읍 이장단협의회, 해뜰마루 정원 가꾸기 시동

부안읍 이장단 협의회에서는 오는 10월 초 '2022년 부안읍민의 날' 행사에 맞춰 활짝필 수 있도록 해뜰정원에 해바라기 100여주를 심었다.

부안읍 이장단 협의회 김재희 회장은 “부안읍의 자랑인 부안 해뜰마루는 각종 나무와 꽃, 연못과 산책로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한폭의 그림이 되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생각한다. 주민이 손수 가꾸는 꽃밭은 2022년 부안읍민의 날에 주민의 참여의식을 함양할 큰 의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 해뜰마루 정원 관리에 각종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부안읍 부녀회에서는 연초에 해뜰마루 부안읍 부녀회 둔치에 비늘꽃을 심어 가꾸고 있으며, 해당화 로타리를 통해서



는 무궁화 동산을 조성하고 가꾸고 있다.

부안읍 해뜰마루는 전라북도 지방정원등록과 국가정원으로 승격을 목표로 북서측에 연못과 둔치 운동시설로 조성된 해뜰마루 10ha, 북측 중앙부에 침수예방시설인 유수지 4ha, 남서측에는 잔디광장, 식생 놀이터, 대형 공영주차장을 포함한 자연마당 5ha, 중간에 신원천생태하천 16ha 등 총 35ha 규모의 정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진입로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만을 남기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